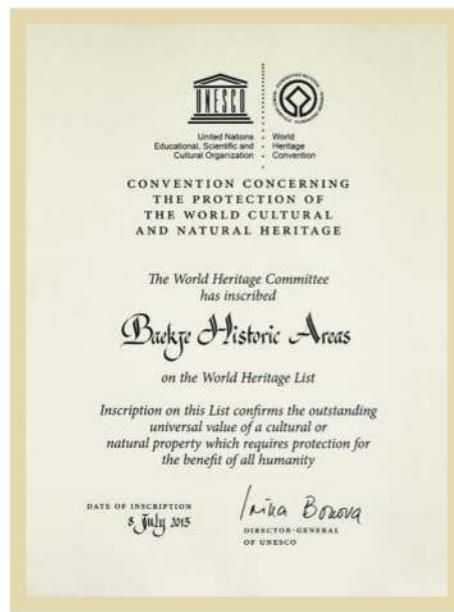


세계유산 등재 인증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2015년 7월 3일 봄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2번째 세계유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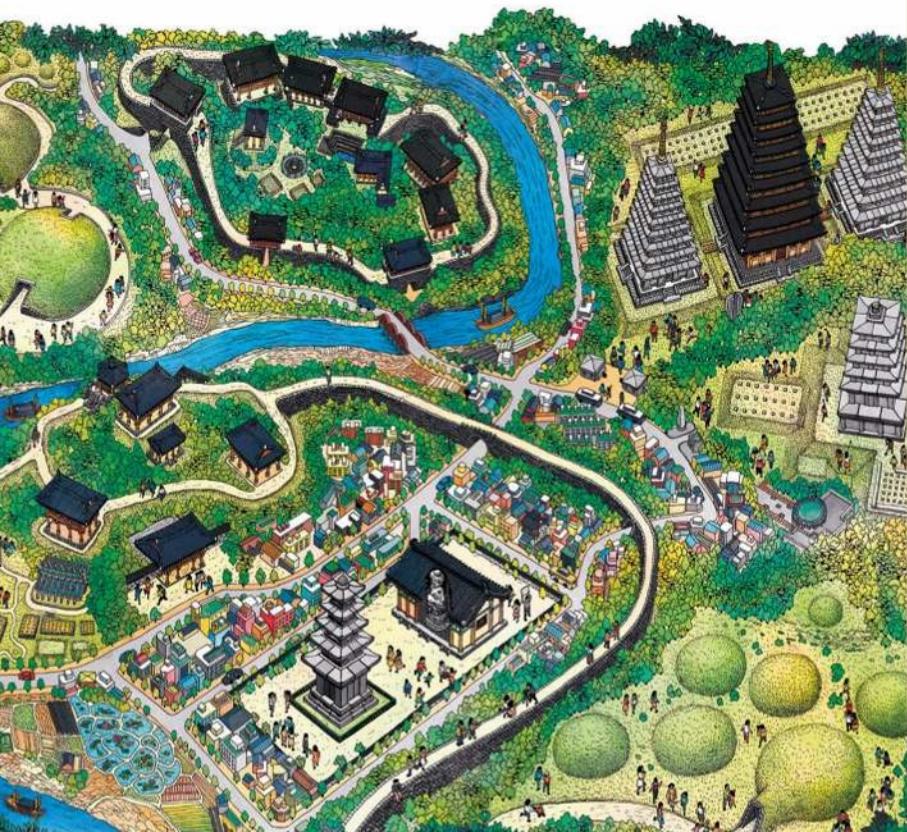
百濟 백제세계유산센터

대전광역시 서구 문예로 137 KT&G빌딩 5층
Tel : 042)488-9726 | Fax : 042)488-6817
페이스북 : www.facebook.com/unescobaekje
블로그 : blog.naver.com/unescobaekje
©2019

百濟 백제세계유산센터

유네스코 세계 유산

백제역사 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등재기준

■ 등재기준(ii) : 특정 기간과 문화권 내 건축이나 기술 발전, 도시 계획 등에 있어 인류 가치와 중요한 교류의 증거

⇒ 한국, 중국, 일본의 고대 왕국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통해 백제가 이루어낸 건축 기술 발전과 불교 확산을 보여줌.

■ 등재기준(iii) : 문화적 전통 또는 문명에 관한 독보적이거나 특출한 증거

⇒ 수도 입지 선정, 불교 사찰, 성곽과 건축물의 하부구조, 고분과 석탑을 통해 백제의 역사, 내세관과 종교, 건축기술, 예술미를 보여주는 유산이 백제의 문화의 특출한 증거

삼국시대 백제 왕도와 밀접하게 연관된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웅진시기」 유적인 공주 공산성, 송신리고분군, 「사비시기」 유적인 부여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능산리고분군, 나성, 「사비후기」 유적인 익산 왕궁리유적, 미륵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중서부에 위치한 고주, 부여, 익산의 8개 유산은 과거 백제가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중국·백제·일본을 이어주는 동아시아 교류의 중심이었다. 이러한 교류를 통해 백제는 불교를 확산시켰고, 예술, 건축 기술 등을 발전시켰다.



공산성

| 사적 제12호

공산성의 능선과 계곡을 따라 성벽을 쌓은 공산성은 웅진시기 방어성이자 왕성이었다. 북쪽으로는 금강이 흐르고 동·서·남쪽은 가파른 성벽이 자리하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이점을 가졌다. 공산성은 산성 안에 왕궁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보여주며, 백제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TIP 공산성에 올라 금강과 공산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왕궁지

산성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왕궁지에는 여러 기의 건물지와 연못이 있다. 이곳에서 확인된 건물지 가운데 벽주 건물은 위계가 높은 건물들에 사용되는 건축양식으로 건물의 상부를 꾸미는 다양한 기와들이 발견되었다.



왕궁부속시설지

공산성 내 가장 넓고 평坦한 지형으로 백제 시대 왕궁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여려 부속 건물들이 있었던 장소이다. 조사결과 수십여 기의 건물지와 도로, 축대, 배수로, 공방지, 저수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공산성 성벽

길이 약 26km에 이르는 공산성 성벽은 도성구간과 성성구간으로 나뉜다. 현재 남아있는 성벽(성성)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쌓은 것이지만 그 아래로 백제시대에 쌓은 토성(성성)이 남아 있다.

TIP 어려운 공산성 성벽길을 따라 걸어보며 백제의 역사와 노력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 사적 제428호
| 사적 제5호

사비시기 백제는 북쪽으로부터 서쪽까지 반달처럼 금강이 휘감아 흐르는 평야지대에 자리잡았다. 새 왕궁은 사비(부여)의 북쪽 부수산 기슭에 세워졌으며, 현재의 관북리 유적을 웅진으로 보고 있다. 왕궁 뒤쪽에 위치한 부수산은 평소 육이 즐겨 찾는 후원이었고, 산 정상과 능선을 따라 팔죽기법으로 쌓은 부수산은 비상시에 피난처로 사용되었다.



사비시기 왕궁, 관북리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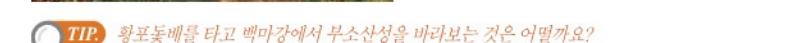
관북리유적에는 대형건물지, 저하저장시설, 연못, 도로 유구 등 왕궁관련 시설의 출토들이 남아있다. 대형건물지(35m X 18.5m)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왕궁 내에서 가장 중요한 정전건물이었을 것으로 보며, 거의 동일한 구조와 규모의 건물지가 사비 후기 왕궁인 익산의 왕궁리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왕궁의 후원이자 비상시 방어성으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그 당시의 성벽(토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부소산성에는 낙화암과 고란사 등 백제의 전설과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TIP 황포돛배를 타고 백마강에서 부소산성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왜 백제는 한성에서 웅진으로 이동했을까?

백제는 한강유역에 자리잡아 성장하였는데, 475년 고구려의 침략으로 수도인 한성(서울)이 함락되어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었다. 475년에서 538년 사비(부여)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64년간을 웅진시기라고 부른다.

웅진은 동·서·남쪽으로는 산지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에는 금강이 흐르고 있어 방어에 유리한 임지였다. 또한, 금강은 바다와 만나 백제가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는 웅진이 사비로 수도를 옮겨 전인 538년까지 백제가 다시 힘을 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음을 말해준다.

웅진에서 사비로

웅진에서 힘을 기른 백제는 중대한 결심을 하여 수도를 사비로 옮길 준비를 하였다. 웅진은 방어에 유리하지만 지역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백제의 발전을 위해 538년 사비로 천도를 하였다.

백제는 새로운 수도 사비에서 친란한 문화를 끌어오며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538년 사비로 수도를 옮긴 이후부터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의 123년간을 사비시기라고 한다.

사비후기의 문화를 보여주는 익산

백제 중흥을 꿈꾸던 무왕(재위 600~641년)은 미륵신앙을 기반으로 새로운 세상을 펼치고자 금마제(익산)에 왕도를 건설한다.

새로운 세상, 미륵세상을 구현하여 전륜성왕으로 우뚝 서고자 했던 무왕의 꿈이 현실화 된 대역사의 현장이다.



TIP 황포돛배를 타고 백마강에서 부소산성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송산리고분군

| 사적 제13호

웅진시기 백제 왕과 왕족들이 묻히 있는 무덤들로, 무령왕릉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 송산리고분군에는 두 가지 무덤형태가 확인되는데 돌을 쌓아 만든 굴식돌방 무덤과 벽돌을 쌓아 만든 벽돌무덤이 그것이다. 1~5호분은 백제 전통의 무덤양식인 굴식돌방무덤, 6호분과 무령왕릉은 벽돌무덤이다. 벽돌무덤은 당시 중국에서 유행 하던 양식으로 웅진시기 활발한 교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중국문화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왕궁리유적

| 사적 제408호

왕궁리유적은 백제 무왕(재위 600~641년)에 조성된 왕궁이다. 밭굴조사 결과 정방형의 궁장 내부에서는 왕궁과 관련된 다양한 시설들이 확인되었다. 남쪽에는 의례, 정치와 관련된 건물이, 북쪽에는 정원과 후원이 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TIP 궁장을 따라 왕궁리유적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대형건물지

너비 35m 길이 18m의 규모로서 정전건물로 추정된다. 거의 동일한 규모와 구조의 건물이 부여의 관북리유적에서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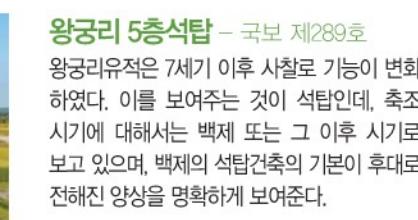
생활시설

국내 최초로 고대 화장실 37가 확인되었다. 궁에 거주하던 궁인들과 관리들이 사용한 것으로, 화장실에서 나온 미생물의 분석으로 과거 백제인들의 생활상을 확인할 수 있다.



후원

왕궁의 북쪽에는 현존하는 백제유일의 후원이 있다. 중국산 어린색(수수색)과 각종 시설들은 백제 후기의 훌륭한 정원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왕궁리유적에서 확인된 정원은 중국·백제·일본으로 이어지는 정원문화의 교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왕궁리 5층석탑 – 국보 제289호

왕궁리유적은 7세기 이후 시찰로 기능이 변화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석탑인데, 축조 시기에 대해서는 백제 또는 그 이후 시기로 보고 있으며, 백제의 석탑건축의 기반이 후대로 전해진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륵사지

| 사적 제150호

미륵사지는 동아시아 최대의 사찰터 중 하나이다. 미륵사는 미륵이 세상에 내려와 3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구원하는 모습을 기념으로 구체화한 백제문화의 탁월한 독창성을 보여준다. 탑과 금당을 3곳에 배치한 독특한 기법을 보여준다.



백제인의 염원을 담은 탑

미륵사지에는 3개의 탑이 있었다. 중앙에는 목탑이 자리했고, 양쪽으로는 석탑이 있었다. 동쪽 석탑은 1992년에 재건되었으며, 서쪽 석탑(국보 제11호)은 2001년부터 해체 보수가 진행되어 2019년에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리봉영기가 발견되어 639년에 석탑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미륵사지 석탑에서는 금동제사리외호, 금제사리내호, 유리병으로 구성된 3종의 사리기와 금제사리봉영기 등 사리장엄이 출토되어 봉안 시기(639), 석탑의 축조, 미륵사의 조성에 대한 역사적 진정성을 더해주고 있다.



(재)백제세계유산센터

| 사적 제301호

정림사지

| 사적 제58호

정림사지는 사비도성의 중앙에 위치하였던 절터로, 도심에 세워진 절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례 중 하나이다. 목탑의 한계로 국복한 높이 8.3m의 석탑이 남아 있으며 조사결과 금당지, 강당지, 승방지 등이 확인되어 불(佛)·법(法)·僧(僧)의 불교 3보를 모두 구비한 백제 고유의 사찰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백제의 사찰은 탑과 금당이 일자선상으로 배치된 모습(탑 1금당이 특장인데 정림사지 역시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고려시대까지 이어진다.



정림사지 5층석탑 – 국보 제9호

정림사지 5층석탑은 백제시대 석탑으로 탑의 원형이 거의 원전한 형태로 남아있다. 목탑의 구조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완벽한 균형미와 비례미를 보여준다.



나성의 기능

나성은 수도를 방어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수도의 인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적인 경계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는 경외매장(도성 밖에 무덤을 조성)의 원리에 따라 사비시기 왕실 구성원들이 묻힌 능산리고분군이 나성의 밖에 위치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TIP 나성의 밭방로를 따라 사비도성의 회화를 걷는 것은 어떨까요?

밭방로를 따라 장대지까지 올라보세요. 날씨가 좋을 때는 이상까지 보인답니다.

나성의 축조방법

나성은 산지구간에는 판축공법을, 저습한 평지구간은 부엽공법 등으로 지형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축조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백제는 당시 중국에서 빚어들인 기술을 바탕으로 백제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 하였으며, 이러한 축조 기술들은 이후 일본으로 전해져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TIP 1호분 모형에서 고분면화를 감상해보세요.

능산리고분군

| 사적 제14호

능산리고분군

| 사적 제58호

나성 밖에 위치한 능산리고분군은 사비시기 왕과 왕족들이 묻힌 곳으로 무덤의 양식은 백제의 전통적인 굴식돌방무덤이다. 사비시기에는 석재 가공 기술이 발전하여 기능된 석재를 사용하여 무덤을 만들었다. 송산리 5호분과 비교할 때 석재 가공 기술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다.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는 나성과 능산리고분군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